

## 이중섭 생애

이중섭(1916년 9월 16일~1956년 9월 6일)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서양화가로 호는 대향 본관은 장수이다.

이중섭의 작품에는 소 닭 어린이 가족 등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향토적 요소와 동화적이고 자전적인 요소가 주로 담겼다는 것이 소재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싸우는 소》, 《흰소》, 《움직이는 흰소》, 《소와 어린이》, 《황소》, 《투계》 등은 향토성이 진하게 밴 대표적 작품이다.

《닭과 가족》, 《사내와 아이들》, 《길 떠나는 가족》과 그 밖에 수많은 은지화들은 동화적이고 자전적 요소가 강한 작품들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166-10 번지에 이중섭 가옥이 있다.

## 이중섭 작품의 특성

이중섭의 작품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소를 주제로 한 그림 인물화(가족 그림 아이들 그림)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중섭이 남긴 그림들이 모두 짧은 기간 안에 그려졌기 때문에 시기 구분은 거의 무의미하다. 주제별 분류 외에도 재료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지만 주제에 따라 그의 화풍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이중섭 화풍의 특징

- 다양한 재료 사용: 이중섭은 유화의 경우 반드시 캔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합판에 유채로 그리거나 종이에 유채 유채와 수채를 섞어 그리는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다. 또한 페인트 용 에나멜을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합판에 유채로 그린 <흰소>가 있다.

- 선의 중요성: 이중섭의 작품에서 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의 선은 독일 표현주의 화가들의 선과는 다르고 초기에 그리던 조르주 루오(Georges Rouault)와도 다르다. 선을 통해 운동감과 양감을 표현하며 반 고흐의 선과 유사한 점이 있다.

- 밀도 높고 치밀한 구성: 이중섭의 작품들은 평면적으로 재구성된 인물들 사이로 3차원의 공간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작은 화면 속에서도 넓은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

- 인물의 표현: 이중섭의 인물 표현은 과감한 왜곡과 요약을 통해 인체의 형태를 자유롭게 나타내고 간략하고 전형화된 얼굴 형태로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 2. 소 그림

이중섭의 소에 대한 집착은 상당히 강했다. 가장 이른 소 그림은 1940 년 미술창작가협회전에 출품한 작품이다. 이후 <연못이 있는 풍경>, <소와 어린이> 등에서도 소가 등장한다. 이중섭의 소 그림은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민족성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다.

## 3. 인물화 (가족 그림 아이들 그림)

이중섭의 인물화에는 가족이 소재로 등장하지만 인물의 형태는 간략하게 처리되어 전형화된다. 이러한 가족 그림과 아이들 그림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으로 결국 모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이중섭의 인물화는 주로 원형 구도를 사용하여 인물들 간의 연결고리를 나타내며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 4. 풍경화

이중섭의 풍경화는 평면화된 화면 구성과 거친 필선을 이용해 대상물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원근법을 사용하면서도 평면적인 면 처리를 통해 화면을 구성한다.

## 5. 기타

초기의 스케치 작품과 닭 비둘기 까마귀를 그린 작품들이 있다. 여인을 그린 스케치 작품에서는 인체 비례와 둥근 어깨 옆 얼굴 등에서 한국적인 여인상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중섭의 작품에서는 손의 표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상으로 이중섭 작품의 특성과 주제별 분류를 통해 그의 작품세계를 살펴보았다.

## 6. 은지화

이중섭의 은지화는 담배나 초콜릿을 싸는 은박지(알루미늄을 입힌 얇은 종이)를 화폭 삼아 못·철필·손톱 등으로 긁어 드로잉 한 뒤 갈색 안료·담뱃재 등을 바르고 종이·천으로 문질러 발색 효과를 낸 것이다.

이 은지화의 가치를 처음 알아보고 수집한 이는 당시 한국에 와있던 미국인이며,

뉴욕현대미술관(MOMA)에 기증되기도 했다.

이중섭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황소 작품이 가지는 의미

이중섭과 일제강점기

생애와 배경: 이중섭(1916 년 9 월 16 일 ~ 1956 년 9 월 6 일)은 일제강점기 동안 태어나고 성장한 서양화가이다. 그의 생애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기를 관통한다.

유학 시절: 일본 도쿄에서 유학하며 민족 정기를 반영한 작품을 제작했다. 오산학교 시절 민족교육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 황소를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하며 민족적 정서를 표현했다.

사회적 맥락: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인의 민족 정서를 억압했으나, 이중섭은 소와 같은 민족적 상징을 통해 저항의 의지를 작품에 담았다.

황소 작품의 의미

강인함과 인내: 황소는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동물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 강인함과 인내를 상징한다.

민족적 상징: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소를 그리는 것을 지양하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섭은 황소를 통해 민족적 자각과 저항의 의지를 표현했다.

자화상: 이중섭의 황소 작품은 자신의 자화상으로도 볼 수 있으며, 민족적 고통과 희망을 담고 있다.

주요 황소 작품 분석

《황소》(1953-1954)

특징: 강렬한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울부짖는 소의 모습이 묘사됨. 검정 눈동자와 거칠게 표현된 얼굴은 일반적인 소와 다른 느낌을 준다.

의미: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를 표현하며, 민족적 자각을 이끌어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희망을 상징한다.

#### 《흰소》

특징: 흰색을 사용한 소의 모습은 한국인의 백의민족이라는 관습과 연결되어 있다. 흰소는 순수함과 고귀함을 상징한다.

의미: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은 한국인의 정신적 표상으로 이해된다.

#### 《싸우는 소》

특징: 두 마리의 소가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통해 역동적이고 강한 에너지를 표현한다.

의미: 갈등과 투쟁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정신을 상징한다.

#### 이중섭의 작품에 나타난 일제강점기의 영향

독립 의지 표현: 이중섭은 작품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독립 의지를 표현했다. 황소는 이러한 의지를 상징하는 주요 소재였다.

사회적 저항: 황소를 통해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과 민족적 자부심을 나타내며, 일본의 억압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담았다.

결론 이중섭의 황소 작품은 단순한 동물 묘사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느낀 민족적 아픔과 희망을 담은 예술적 표현이다. 그의 작품은 강렬한 선과 색채를 통해 민족의 정서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독립 의지와 희망을 상징하는 중요한 예술적 유산으로 평가된다.

#### 이건희 컬렉션의 이중섭 작품

故 이건희 회장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1488 점의 작품 중 이중섭의 작품은 104 점에 달합니다. 이는 유영국(187 점), 파블로 피카소(112 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유영국과 피카소의 작품 대부분이 도자와 판화인 반면, 이중섭의 작품은 회화와 드로잉으로 이루어져 있어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이중섭의 작품이 이건희 컬렉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이건희의 미술품 수집 철학

삼성가의 미술품 수집은 호암 이병철 창업회장부터 그의 아들 이건희 선대회장까지 대를 이어 내려왔습니다. 수집은 단순히 돈과 정성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지속적인 노력과 안목이 필요한 일입니다.

#### 이병철 창업회장

수집 스타일: 이병철 창업회장은 비싸다고 판단되는 작품은 절대 구입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는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 이건희 선대회장

수집 스타일: 이건희 선대회장은 가격을 따지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며 미술품을 구입했습니다. 명품 한 점이 다른 많은 수집품의 가치를 올려준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품 수집: 이건희 선대회장은 직원에게 국보를 사라고 주문하며, 한국 사람이 경매에 참여하면 양보하고, 외국인이 나오면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나라를 위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이건희 컬렉션의 의미

이건희 컬렉션은 그의 독자적인 수집 철학과 스타일을 반영한 결과물로, 호암미술관과는 다른 차원의 '리움 컬렉션'과 '이건희 컬렉션'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결론

이건희 회장의 수집 철학과 이중섭 작품의 중요성은 한국 미술사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 이중섭의 작품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그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수집이 단순한 개인적 취미를 넘어, 한국 미술 문화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업적임을 의미합니다.

## 김환기

김환기(1913 년 4 월 3 일 ~ 1974 년 7 월 25 일)는 대한민국의 서양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한국의 미술품 경매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 생애

본관은 김해이고, 호는 수화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936 년 일본 니혼 대학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도쿄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1946 년부터 1949 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신사실판전에 출품했습니다. 여러 차례 국전 심사위원으로 활약했으며, 1952 년 홍익대 미술학부 교수가 되고, 1954 년에 예술원 회원이 되었습니다. 1956 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엠베지트 화랑을 포함하여 1957 년 파리, 니스, 브뤼셀 등에서 계속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1959 년 귀국하여 홍익대 교수, 초대 예술원 회원,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1963 년 제 7 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한국 대표로 참가하여 명예상을 받았으며, 그곳 현대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었습니다. 1964 년 이후 부인인 수필가 김향안과 함께 미국에 체류하며 작품 활동 중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2015 년 김환기의 1971 년작 작품 <19-VII-71#209>은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한화 47 억 2100 만원에 낙찰되었으며, 이전의 최고가였던 박수근의 <빨래터>를 제치고 국내 작가 미술품 경매 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019 년 11 월 23 일 김환기의 1971 년작 작품 <Universe 5-IV-71#200>은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한화 132 억

3600 만원에 낙찰되었고, 한국 미술품 중 최초로 한화 100 억을 넘긴 작품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서양화가로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평가받습니다. 초창기 추상미술의 선구자였으며, 프랑스와 미국에서 활동하며 한국미술의 국제화를 이끌었습니다. 김환기는 추상 계열에서 벗어나 구상을 추구하면서도 자율적인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면, 선, 형태, 색채, 리듬 등으로 대상을 조형적으로 새롭게 표현했습니다.

## 작품 활동

전후 14 회의 개인전을 국내외에서 가졌고, 1970 년 한국일보사 주최 한국미술대상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작품 경향은 초기의 기하학적인 추상에서 출발하여 동양적인 관조와 아취를 근간으로 한 반추상의 세계를 보이다가 도미 후에는 완전히 추상화풍으로 전환하여 옹기졸한 양식의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론도>, <산>, <산월>, <야상곡>,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등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 <론도>는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 535 호로 등록되었습니다.

남도 서양화단 1 세대에 속하면서 한국 근현대 추상미술의 선구자로서 독보적인 회화세계를 펼쳤습니다. 김환기는 전라남도 신안 기좌도 출신으로 안좌국민학교 졸업 후 상경하여 서울 중동중학을 중퇴하고 1927 년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대학 미술학부와 연구과에서 본격적인 화업을 닦던 시기인 1932-37 년은 일본 근대미술에서 청년세대의 전위미술운동이 시작되는 전환기였습니다.

그가 1935 년 니카카이에 출품한 100 호 대작 <종달새 울 때>는 추상으로 변화 과정 중인 작품으로, 도오고 세이지 등의 입체파식 추상 영향과 문학적 향수를 살필 수 있습니다. 1936 년 동경에서 첫 개인전을 갖고 이듬해 귀국한 뒤, 서울화실에서 작업에 전념하면서 자유미술협회전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국내 화단은 추상이 전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으나, 김환기의 작품들은 구상적 자연형상을 털어버린 단순형태의 색면구성 위주로 당시 일본화단에서 모더니즘 형식으로 재해석되고 있던 1910 년대 유럽의 기하학적 추상 영향을 받았습니다.

광복 이후, 특히 1948 년 신사실과 결성 이후 김환기의 작품은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조선백자, 석굴암, 소슬대문 같은 소재들을 단순 변형시켜 재구성하거나, 전통회화의 필선효과와 공간 여백의 멋을 서구식 화구로 각색시켰습니다. 1956 년 프랑스로 떠난 후, 민족적이면서 현대적인 회화세계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1960 년대, 브라질을 거쳐 미국에 정착한 1963 년 이후 김환기의 작품은 현대 동양화의 회화세계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의 자연에 대한 심상 세계와 시적 정취를 곁들여 동양적 추상회화를 정립하였습니다. 주로 <메아리>나 자연의 <소리>를 테마로 반점 같은 작은 붓자국들을 연속시켜 이전의 단순색면 작업과는 다른 깊고도 투명한 공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후기작품들은 "세계적이기에는 가장 민족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예술이란 강렬한 민족의 노래인 것 같다"는 김환기의 말처럼, 동양적 사유의 세계로 눈을 돌리면서 문인화의 정신세계와도 같은 회화적 함축에 관심을 모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동양회화 본래의 추상정신 체득과 그 현대적 변용의 가능성을 구체화한 작업들로서, 자연주의 시정이 짙게 묻어나는 회화세계의 탐닉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일제강점기 동안 김환기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소들**

**일본 유학 경험:** 1930 년대 김환기는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나 서구 미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936 년 니혼대학 미술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연구과를 수료했습니다.

**서구 미술 사조 접촉:** 도쿄 유학 시절, 김환기는 초현실주의, 입체주의, 추상미술 등 서구의 전위적인 미술 경향을 경험하고 실험했습니다.

**아방가르드 운동 참여:** 1934 년 대학 재학 시절, 김환기는 아방가르드 미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추상 미술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미술 운동 활동:** 1937 년 귀국할 때까지 일본에서 김환기는 길진섭 등과 함께 백만회를 조직하고, 자유전에 작품을 출품하며, 아마기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신미술 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한국적 정서와 현대성 융합:** 이 시기 김환기는 서구의 다양한 미술 사조를 접하고 실험하면서도, 점차 한국적 정서와 현대성을 겸비한 독자적인 화풍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